

龍仁文化

1987. 6. 30

第 11 號



龍仁文化院

龍仁文化

1987. 6. 30

第 11 號



龍仁文化院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머 리 말	문화원장 김 정 근.....	5
朝鮮白磁의 理解	湖巖美術館學術研究室長 金載悅	7
용구문단 <수필>	便紙	박 상 돈..... 10
<詩>	6월에	노 영 미..... 18
	그대의 이름은	이 길 호..... 19
	山	박 상 돈..... 21
	無題 外 1편	유 혜 경..... 22
	新綠	林 峻 奎..... 24
서에감상 <춘경>	용문서예학원장 김 춘 자.....	25
<사미인곡>	용인서예학원장 이 경 훈.....	26
一事一考	愛鄉則愛國	朴 弼 東..... 27
꽃 쫓 이	꿈속의 환상	안 창 진..... 29
마을誌(2)	보정리(寶亭里).....	이 인 영..... 30
特 輯	地方文化의 活性化는 可能한가?	河 周 成..... 34
옛문헌속의 용인(9)	정암선생 사당에서	홍 순 석..... 38
용인금석유문자료(6)	증참판 이공 정려기	홍 순 석..... 39
용인문화재 및 향토유적현황	편 집 실.....	42
알아두면 상식	편 집 실.....	45
사발통문	50
表紙說明	61
편집후기	62

머 리 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어수선한 정치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할 수 없는 문화활동은 오늘도 그 맥박과 호흡을 계속하여 용구문화 제 11호가 탄생해야 하는 약속 날짜대로 발간하게 된 것을 독자여러분과 같이 기쁘게 생각하며 경하해 마지 않는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식물은 물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자기생존의 위협이 되는 질병이 항시 주위에 맴돌고 있다. 생명을 유지하며 다음 세대로 종족을 유지하려면 개체가 건강하고 생식능력이 왕성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질병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고 듣는다.

이러한 질병은 빨리 제거하여 건강한 개체를 유지하여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질병을 치료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는 원인요법이다.

병이 발생하면 그 병이 신체의 어느 부분위에서 발생하였으며 병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병이 나면 어떤 부위가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며 이런 증상을 통해서(병에 따라서는 본인이 난 것을 모를 때도 있기는 하지만) 병이 났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되고 곧이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체온검사, 혈압검사, 혈액검사, 맥박검사, 호흡, X-Ray, 변검사, 동위 원소촬영, 뇌파검사, 위시경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취하여지는 것이 진찰이다.

이 진찰을 통해서 원인을 찾지만 하면 난치병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

물론 약을 복용시키거나 주사를 맞거나 수술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둘째로는 대정요법이다.

머리가 아프거나, 붓거나 멍이 들었을 때 병의 원인을 찾기에 앞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약을 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맹장염이 걸린 사람이 배가 뭉

시 아프다고 하여 진통제만 계속 사용하여 아픔만 멎게 한다면 급성인 경우에는 맹장이 터져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하고 이를 치료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사람의 몸 구조와 각 기관의 기능을 우리 사회의 구조와 기능에 견주어 본다면 거의 비슷한 데가 있어서 사람의 몸에 병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도 병이 나게 마련이다.

사람의 몸에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순환기 계통, 신경 계통, 생식기 계통이 있듯이 사회에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자유당 집권시절이라 기억하지만 남대문(도깨비) 시장에 몇번 들러 본적이 있다. 물론 외래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국산품이 없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도깨비 시장에서 「뒸다」라고 한 쪽에서 신호해 주면 삼시간에 새파랗게 질린 상인들이 물건을 감추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외래상품의 유통은 분명히 위법이며 사회적 병폐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사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외래품의 유통단속을 하는 것은 분명 대정요법에 해당된다고 내 좁은 소견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외래품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올 때는 그 경로가 비행기, 선박, 여행자, PX 등을 통하여 들어오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외래품이 들어오는 원점을 체크하는 원인치료 방법을 취한다면 단속하는 인원이나 경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을 괴롭히는 또는 단속원의 짐이 되는 외래품 단속이라는 대정요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원인요법과 대정요법은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원인을 찾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삶의 큰 지혜가 될 것이다.

朝鮮白磁의 理解

湖巖美術館學藝研究室長
金 載 悅

(一)

人類가 흙과 불을 이용해 人間生活에 유용한 土器를 처음 만든 것이 약 만년전쯤 일이나, 靑磁나 白磁를 만든 것은 불과 천오백년도 되지 않는다. 특히 白磁는 最良質의 흙을 이용해야 하고, 그 제작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 기술적으로 靑磁의 단계를 극복해야만 백자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백자는 도자기 중에 最上級의 것이다.

이 백자는 6세기 중엽경에 中國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0세기초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日本은 임진왜란 이후 朝鮮陶工 李參平이란 분이 기술을 가르쳐 시작되었고, 유럽등지에서는 18세기에 가서야 백자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사실 백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보아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못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白磁文化를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朝鮮時代였다.

(二)

朝鮮白磁는 高麗白磁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고려백자는 統一新羅末~高麗初인 10世紀 초엽에 龍仁郡 二東面 西里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나 그 量은 매우 적었고, 백자제작기술도 불완전하였지만,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朝鮮王朝가 성립되면서 곧바로 우수한 백자를 생산하게 된다. 사실, 中國에서도 宋代까지는 백자수준이 높지 못했고, 진실한 백자를 만들게 된 것은 14세기 이후 元代부터이며, 이때부터 白磁의 時代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中國과 큰 時差없이 우리나라에서 백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은 바로 우리나라 陶磁技術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백자가 중요한 것은 白色의 깨끗한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이 위에 갖가지 문양을 장식한 여러 종류의 도자기들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백자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도자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일단 백자가 완성되

자 中國에서는 재빨리 靑華나 辰砂白磁가 크게 성행하고 나아가 매우 호화롭고 장식적인 五彩의 자기들을 더욱 애호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백자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靑華나 鐵繪, 辰砂白磁들이 소량 제작되긴 하나 시종일관 백자를 중심으로 자기를 만든 것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큰 특징인 것이다. 즉, 조선시대 자기생산의 90% 이상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수한 백자였다. 이것은 그당시 호화롭고 장식적인 자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바탕이 곧 그러했기 때문에 유난히 백자를 아끼고 사랑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마디로 조선시대 도자기는 白色에로의 志向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三)

朝鮮時代인들이 백자를 잘 만들기 위해 쏟은 열정과 노력은 현대인으로서의 상상을 不許한다. 鮮初文化의 黃金期를 이룩한 世宗大王께서는 궁중에 소용되는 그릇들을 백자로 대체시켰으며,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준높은 백자들이 생산되게 되는 것 같다.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백자제작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좋은 白色을 내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良質의 高嶺土가 나오는 곳을 찾아내어 거기서 채취된 흙을 京畿道 廣州에 있었던 分院에 모아 이를 眼目높은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여러번 만들어 본 뒤 合格判定을 내려야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高嶺土를 채취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土脈이 높은 산의 절벽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흙이라도 陽地에서 캔 흙은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지만, 陰地에서 캔 흙은 높은 온도에서 주저앉거나 뒤틀리기 쉬워 이단한 지역을 가려서 채취해야 했다. 만일 이런 사실들이 지켜지지 않아, 가마에서 구워낸 자기가 못쓰게 되면, 그 담당자들이 큰 벌을 받았던 기록이 보이고 있다.

흙의 선별기준 또한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금 세계적으로 질 좋기로 이름난 慶南 河東高嶺土조차도 “그 색이 靑黑色을 띠고 있어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不合格判定이 내려졌으니 그 당시의 白色에 대한 안목이 어떠한지는 미루어 짐작이 된다.

기타 士大夫들의 文集에도 그림그린 磁器가 아무리 좋아도 白色의 순수한 자기만 못하다느니, 우리나라 磁器는 白磁가 最高라고 하는 등, 그당시 사람들이 스스로가 白磁를 崇尚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했던 것 같다.

(四)

이렇게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좋은 백자를 얻기 위해 애쓴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그당시의 社會文化的 背景 내지는 그들의 공통된 世界觀, 宇宙觀이 작용하고 있는 듯 싶다.

알다시피 朝鮮王朝의 成立은 儒敎의 理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生活은 근검, 질박하면서, 精神은 항상 고도의 높은 理想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世俗에 살면서도 항상 脫俗의 境地를 마음에 두었던 것이 朝鮮時代의 선비들이었다.

칭아한 계곡의 물과 같이 그렇게 담담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결한 마음 발을 일구기에 온갖 정성을 쏟았던 선비들의 그 哲學이 그대로 朝鮮白磁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純一하고 淸淨한 마음을 바탕으로 自然과의 合一 속에 人間의 正道와 宇宙의 哲理를 지키면서 되도록 삶을 너그럽고 어질게, 자연스레 살아가고자 했으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닌 분들은 사물을 보는 美的인 感覺 또한 格調가 높을 수 밖에 없어 마침내는 그릇굽는 일개 陶工의 마음까지도 馴致되어 홀연히 그 마음들이 相應하여 그토록 빼어난 白磁가 만들어진 것이리라.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룩한 위대한 生活의 美인 것이요, 그 結晶體가 바로 朝鮮白磁인 것이다.

높은 안목을 가진 세련된 知識人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朝鮮時代에서는 이렇게 日常에 사용되는 밥그릇 국그릇 하나, 술병, 술잔 하나, 사랑방의 文房具는 물론 祖上을 섬기는 祭祀用的 각종 祭器들에 이르기 까지, 실로 비범한 그네들의 美感이 반영되면서 朝鮮白磁는 단순한 工藝品의 차원을 넘어 藝術的 境地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나는 스스로의 생각에도 별나게 편지쓰기를 좋아하고 많이 쓰는 편이었다. 그 경력마저 제법 화려(?)해서 그 아이 무렵인 오학년 시절부터 이성과의 서신 왕래를 가졌다.

이성이라해서 같은 또래도 아닌 사오년쯤 연상의 여인과 말이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나는 착실히 일기를 썼었다.

하루는 일기를 쓰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펼치니 낫설은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의아스런 마음으로 조심스레 내용물을 꺼내 보니 상당히 예쁜 글씨로 써내려간 시 한 편.

그 것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고, 나로 하여금 막연하나마 시를 쓰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심어준 소원의 진달래꽃이었다.

진달래꽃은 그 누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며, 우연한 기회로 내 일기장과 그 속에 적혀있는 동시를 읽게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잘 가꾸어 보라는 격려와 남의 일기를 허락도 없이 읽은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는 용서의 글이 들어 있었다.

어린 마음에 한 편으로는 무언가 뿌듯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가방을 든 채 같은 마을 친구네 집으로 달려 갔다.

그리고 친구 누이에게 편지를 꺼내 보이며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친구 누이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자기와 같은 반으로 (당시 중학교 삼학년) 집에 놀러왔다가 자기의 말을 듣고 내 일기장을 보게 됐노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편지를 받았으면 당연한 예의로 답장을 써야 한다고 회신을 독촉했다.

머칠을 시달리던 내가 아주 짝막하게 회답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몇번인가 편지와 시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내 친누이에게 편지들이 발각되어 사실이 들통나버렸고, 조그마한 녀석이 벌써부터 여자와 편지질이라는 식구들의 우스개 소리에 창피해진 나는 더 이상 서신을 지속하지 못한 채 중단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점차 나이들어 성장해오면서 한 번도 얼골조차 본일 없는 그 여인의 이름이 생생하게 남겨져 내 어린 날들과 함께 아기자기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다.

그 후로도 나는 참으로 많은 편지들을 썼다.

학창시절에서 군에 입대하기까지 사춘기의 고뇌며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어설픈 문학, 종교, 철학, 사회론에 대하여 백지 몇장의 장서들을 밤새워 써

17 : 20

“박주사님 전화예요.”

같은 계의 여직원이 건네주는 전화를 넘겨 받았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보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 숙이?”

“예, 맞았어요. 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럼 잊을리가 있나. 아까 메모지를 보고 짐작했지. 그런데 부리국민학 교이면 숙이 모교잖아?”

“그래요. 작년에 발령받았어요. 참 이산가족 만나기보다 더 힘들군요.

제가 그간 얼마나 많이 생각해온지 아세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 무어가 제일 궁금한가?”

“결혼 하셨어요?”

“그럼 벌써 오래됐지.”

“아이는 몇이예요?”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 어마 아주 잘됐군요. 어쩜 그리 꼭 알맞게 낳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

“말도 마세요. 제가 얼마나 찾아 뵙구 싶었는지 아세요? 여러모로 궁리 하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무작정 군청으로 전환 했어요. 다행히 거기 계시다고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 이렇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니 참 반갑구만. 난 영영 끊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럴리가 있나요. 아직도 편지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걸요. 그 글을 볼 때마다 무척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어린시절의 모습이 거기 다 있거든요. 한번 뵙구 싶어요.”

“언젠가 시간나면 만나게 되겠지. 결혼은 아직 안했을 테고.”

“그럼요. 제 나이가 몇이나 됐대구요.”

“스물 셋, 아니야?”

“그보다는 더 됐어요. 넷이예요.”

“어허. 벌써 그리 됐나? 그런데 장거리 전화 그리 오래해두 괜찮아?”

“괜찮아요. 바쁘시지 않으면 전화좀 주고 그러세요. 오후에는 수업이 많으니까 피해서요.”

<용구문단> ❄❄❄❄❄❄❄❄❄❄❄❄❄❄❄❄❄❄❄❄❄❄❄❄❄❄❄❄❄❄❄❄

지 않은, 늘 잔잔하고 적당한 상태, 그것이 바로 중용이요, 타인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조화와 균형이다.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다.

허나, 욕망만이 앞서 건강에 무리를 한다거나 주위 사람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일은 삼가라.

조화와 균형.

중용.

공자는 회갑이 지나서 중용에 어긋남이 없는 행동속에 살아도 마음의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가?

깊이 있는 말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것에 입각하여 살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남에게 불쾌를 주지도 않는 사람은 늘 두텁고 친밀한 인정속에 참다운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숙아!

사람은 누구나 기발하고 멋진 예지력이 번득이는 젊은 시절을 거쳐 성장하고 그 시기는 바로 그 맘때부터 시작되는게 아닌가 싶다.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그 예지력을 자기 것으로 정립시켜 더 높고 크게 키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뿐.

넓고 깊게 사고하라.

뚜렷한 대상도 없이 무언가 마냥 그리워질 땐 밤새워 킁킁 사연을 적어도 보고 공연히 뜻모르게 서글퍼질 땐 베개깃이 다 젖도록 울어도 보고 모든 것 궁금하고 답답하면 또 글 띄우렴.

고되고 바쁘지만 기꺼이 답해줄께

그럼, 안녕.

건강을 빌며.

1979. 1. 2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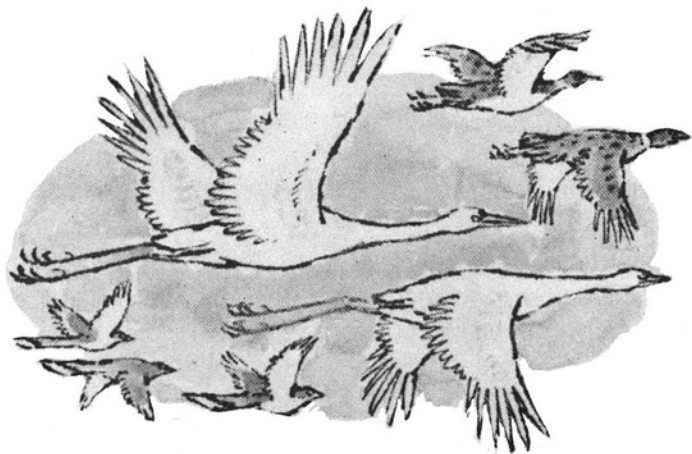
우리 문득 헤어지고 갈수록 보고픈 정,
낮이나 밤이나 그리움에 잠겼으니,
행여 이제는 소식올까 설레이는 기다림.

사무치게 그리워 눈에 삼삼이는 날,

살며시 찾아든 정겨운 그 속삭임.
천갈래 얽혔던 시름 봄눈인듯 녹여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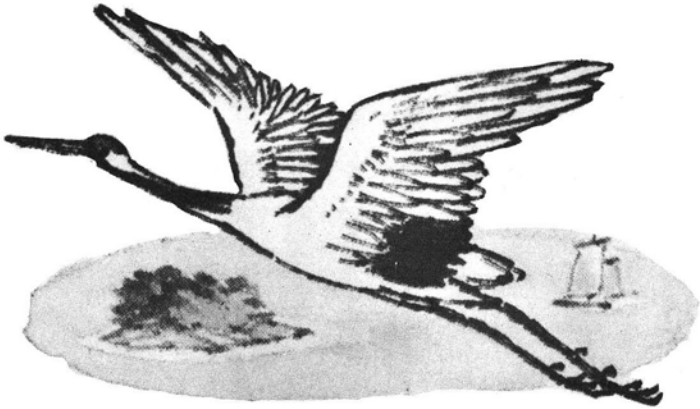
가슴깊이 새튼한 정, 백지 가득 넘쳐 실어.
하이얀 나래속에 밀어를 접었다가
외로운 님의 가슴에 무치개로 떡우리.

〈便 紙〉



<용구문단>

그대 이름을 알고자
문 열고
초여름의 바람을 초대하였지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싱그러운 바람
이제는
합장을 해야 할 시간
이심전심!
어떻소, 정확히 불러준것 같소?



깊은 잠속을 구르며
 얼마나 더 깊이 잠들기를
 절망했던가

문득 눈뜨면
 낮은 천정들
 유년의 생각
 좇어오고 기억하기 위해
 다시
 기억상실증을 불러
 유체 이탈된 몸은
 풍선처럼 떠오르나
 드디어 내흔이 육체위에서
 이끌어, 손 내밀자
 아아 꿈으로
 꿈으로.



용문서예학원원장

김 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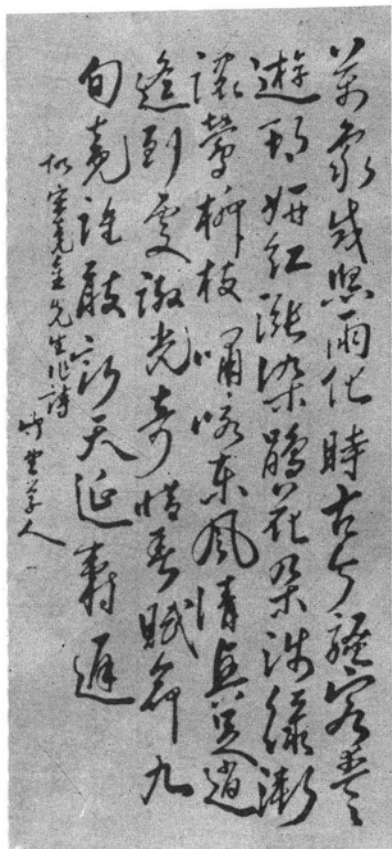
만상 다 기빠하는 비를 맞은 때에
옛이나 지금이나 시짓는 사람이
그때를 사랑하면서 읊시기다.

꽃은 붉고 이쁘게 물들었고
두견화 참 꽃이 진달래꽃이
다 필려고 명우리가 썼고

넓게 푸르고 점점 깊어가는데
피꼬리에서 버드나무가지에서 우는 때이다.
시를 읊으면서 동녘바람 풍유에

맑은 흥은 족하고
산책하는 곳마다 맑은 벗이 기록하도다.
봄을 아끼고 하느님이 주신 명령대로
사는 구십을 바라보는……

누가 감히 하느님께 호소하며 수명연장
시켜 달라고 애도를 하나.



愛 鄉 則 愛 國

朴 弼 東

시골의 이느 선비가 揮毫를 하는데 ‘愛鄉則愛國’이라고 쓰는 것을 본적이 있다. 故鄉을 사랑하되나머지 家庭을 國家와 比較해 생각해 보는 것처럼 故鄉을 나라와 比較해서 愛鄉하는 것은 곧 愛國하는 것이 된다는 뜻으로 지은 글이라고 생각된다.

내 故鄉이 農村이고 未開한 산골이라 할지라도 故鄉은 故鄉이다. 自己 故鄉을 都市와 比較해 落後된 僻村이라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며 숨기거나 自己 故鄉을 밝히지 않으려한다면 自己 自身の 그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오히려 自己가 自己力量을 다해 努力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출세라도 할 수 있었을 때 世人들이 自己의 出身 故鄉이 어딘가? 먼저 알아보려 하게 되고 그 故鄉이 僻村이면 僻村일수록 더 놀라워하며 그 故鄉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 數많은 名士名人들의 歷史를 통해 實證되고 있고 歷史에도 길이 남아 빛나게 될 수 있는 故鄉이 出生의 故鄉이기도 하고 歷史의 故鄉이기도 한 것이 自己의 故鄉이 아닐까? 故鄉! 故鄉! 내 故鄉 龍仁이여…….

筆者 自身の 愛鄉心은 다른 愛鄉人士들에 比한다면 견줄바 못되지만 우리 文化院에서 發行하는 季刊 龍丘文化誌에 몇 字의 글이나마 실려서 故鄉文化發展事業에 多少의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多幸일까?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기를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더 뛰어난 글을 쓸 수 있으면서도 사양을 하고 있는데 出衆나게 이런 것을 왜? 하는 것일까? …… 하고……. 그러나 못난 사람이 있어야 잘난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 변변치 못한 이 글이 公開된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임을 이 기회에 밝혀두고자 한다.

“一事一考”이라는 表題가 格에 맞을지는 모르나 한가지 일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본다는 뜻으로 짤막하게나마 써서 그 內容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올바르게 고치고 또 行動하는데 參考가 되게 하는 것이 그 目的이라 하겠다. 이번 內容에서는 너무 故鄉打命을 하게되 多少 面愧

〈一事一考〉

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 文化院이 우리 故郷의 特히 文化面에 있어서의 그 發展事業을 主로 하게 되는 機構이고 團體임을 암직하면서도 우리 鄉民들이 間或 文化院이 무엇 하는데나(?)고 묻는 것을 가끔 듣고 있다. 이번 機會에 내 나름대로 우리 文化院의 郷土文化의 發展과 그 暢達에 寄與하는 貢獻이라고 한다면 좀 阿附하는 말 같아 그 努力이라고 고쳐 말하면서 얼마나 影響力을發揮하고 있는가를 紹介하는 글로서는 未洽하나마 眞心과 誠心으로서 表現하고자 한 것이 愛郷論으로만 全文을 차지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이라든가 行動 秩序 其他等等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지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關해서 知識人 또는 新聞 라디오 TV 放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教訓 或은 平素 社會에서 發生되고 있는 問題點 등을 參考로 해서 우리 鄉民에게 復習이라고나 할까 외 람된 立場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恒常 念頭에 두고 쓰고자 하는 것이니 或은 잘못된 內容이 있을지 모르므로 忌憚없는 指摘과 詰責을 바라는 바이다.

이번 글의 內容은 우선 우리 文化院의 事業을 愛郷事業과 어떠한 關係인지를 暫時나마 一考해보는 機會로 삼는 것도 意味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써보기로 한 것이다.

※ 다음번 쓰는 機會에는 本名을 쓰지 않고 皇考의 作名인 石岡으로 대신 하겠아오니 諒解하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용인 국민 학교
지도 오 민 근
교사 안 창 진

◎ 제 목 ◎ 꿈 속의 환상

◎ 소 재 ◎ 병 꽃
스타가자로
울스토메리

전설 속의 한 처녀는
타는 듯한 욕망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상과 꿈을 꾸고
있었지요.
처녀는 끝내 욕망으로
몸을 태우고 말았지요.
한 쌍의 원앙 오리처럼
그런대로
한 세상
편히 살지 못한 채……



보정리(寶亭里)

이 인 영

행정연혁집을 보면 동리내에 보수원(寶樹院)이 있고 큰 정자가 있었다 하여 그 두문자(頭文字)를 따서 보정리(寶亭里)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현 서쪽 10리 지경에 보시원(普施院)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바 寶樹院과 普施院이 한자표기로는 상이하지만 음으로는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의 위치도 거의 같기 때문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명확한 자료가 없다.

보정리는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 당시 연원(蓮院), 소실(韶室), 이현(泥峴) 독정(篤亭) 등 4개 부락을 합쳐 보정리라 칭하였다.

보정리는 남북으로 흐르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2개 부락씩 동서로 나뉘었는데 이와 평행하여 경부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지나고 동서로 양분되었다. 서북으로 수지면 풍덕천리와 접하고 동북으로 죽전리와 접하며 동남으로는 마북리와 접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가시권 지역으로 새마을 개량 사업이 가장 먼저 착수되었고 주위 농경지가 정리되어 소위 농촌 근대화에 있어서는 선두 그룹에 속했던 지역이다.

◆ 연원(蓮院)

이 마을은 행정리로 보정 1리에 해당된다.

이 마을에 보수원(寶樹院)이 있었고, 또 마을 중간지역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연꽃이 많이 피어났으므로 연꽃蓮字와 보수원의 끝자를 합쳐 연원이라 했다고 전한다.

이 마을은 동고서저한 남향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그 동쪽을 원골이라 하고 그 남쪽을 가재울, 언덕안이라고 부른다.

1리와 4리 사이에 목장이 있고 목장 부근을 육골(육골→윗골)이라고 하고 북쪽에 소마니 고개(손맛이 고개 ← 望客峴)라고 하는 곳이 있다.

또 이 부근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¹⁾ 마제석부(磨製石斧) 일괄 유물이 발견되었다.

부락 뒷쪽에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정월달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

이 있었다.

광주 이씨가 13대를 살았다.

◆ 소실(韶室)

행정리로 보정 2리에 해당된다.

이 부락 서쪽으로 소수봉(韶水峰)이라고 하는 산봉이 있고 그 산아래 집(室)이 있다는 뜻으로 소실이라 했다.

이 부락은 용인씨(龍仁李氏)의 集姓村으로서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이중인(李仲仁) 후손들이 600여년부터 살아왔으나 지금은 8가구 정도만이 남았다.

마을 동쪽 들판을 두멍자리(두멍=못), 갈모자리, 동래자리(외딴집이 있었다) 등으로 부르며 그 서남쪽을 삼막곡(三幘谷), 거리동으로 부른다. 삼막곡 부락 앞을 지나는 길이 있는데 옛날에 수원으로 통하던 대로(大路)였는데 그 서쪽으로 제부고개가 있다. 고개가 후미져서 옛날에는 수원장으로 소사려 가던 농부들이 가끔 노상 강도를 당하기도 했던 곳이다.

제부고개 초입 좌측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 한명윤(韓明胤)묘소와 그 *3)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또 동리 남쪽을 염초골, 절골, 광신타 등으로 부르며 구흥부락에 마방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구흥역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 마을 북쪽 인근지역을 방자뜰, 든전뜰(든전←둔전)이라고 부르며 또 왜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왜꼴은 왜놈골 즉 임진왜란때 왜군이 진쳤던 곳여서 생긴 지명이다.

◆ 독정(篤亭)

행정리로 보정 3리이다.

옛적에 동구(洞口) 외진 곳에 정자 하나가 서 있어서 “홀로 있는 정자”를 한문 풀기로서 독정(獨亭)이라고 한 것인데 홀로독(獨)자보다는 도타을독(篤)자가 좋다고 하여 독정(篤亭)으로 고쳤다.

이 마을은 동쪽의 두리봉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서남으로 흘러내린 산록에 남향으로 자리잡은 취락지로서 30여호가 자리잡고 있으며 동구밖에는 풍치림이 그윽하고 부락 서북을 흐르는 탄천이 죽전리, 풍덕천리와 의 경계를 이룬다.

제 5대 용인군수를 지낸 이주진(李周鎭)씨가 81세의 고령으로 생존하여 필자와 만났는데 이분이 출생한 곳이기도 하며 또 이 군수의 고조부가 양지현감(陽智縣監)을 지냈는바 벼슬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이후 전주이씨가 150여년을 살았다.

<마을誌 (2)>

동리에서 택호(宅號)를 이양이집이라고 하는 것도 양지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 마을을 일명 정문동(旌門洞)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마을 중간에 ※4) 이찬조(李讚祖)의 정려문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이찬조는 이주진 전 용인군수의 10대조이다.

동북쪽으로 연원부락과 이 부락 사이의 고개를 연원(연원)이 고개라고 부르며 보정리와 마북리간 사이의 고개를 썩고개 또는 마꿀고개라고 부른다.

◆ 이현(泥峴)

이 마을은 보정 4리에 해당된다.

4개 마을 중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뒷산을 실로암 단지라고 부르는데 종교 재단에서 이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붙인 이름이다.

원래 이 마을의 뒷쪽으로 고개가 있었는데 하도 땅이 질퍽거려서 질고개 또는 진고개라고 불려졌는데 “질다”는 것을 한자풀이로 질니(泥) 고개현(峴)으로 하여 마을 이름이 되었다.

남평 문씨의 집성촌이었고 최소한 8대를 살았다고 전한다.

부락 뒷산을 장대봉(장대봉 ← 將臺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임진왜란때 사용했던 조총이 출토된 일이 있고 또 장대봉 아래에서 돌 살충이 많이 나왔었다.

동리가 서쪽 산을 끼고 남북으로 흩어져 있어 옷말, 중말, 아랫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동쪽을 도논, 들논, 풍수밭(풍치림이 있다), 문진 등으로 부르고 서쪽은 이미 안골, 왜골, 쪽다리 등으로 호칭되고 있다.

또 북쪽에 평실, 안터, 이질, 진동(陳頭) 등의 속지명이 있고 마을 남쪽을 광내(廣川)라고 한다.

※ 1) 마제석부(磨製石斧)

1981년 7월 16일 구성면 상하리 송영만 부친 장례도중 출토되었다. 타제(打製) 돌도끼 3개, 마제(磨製) 2개 등 5점이 출토되었으나 3개는 파손되었다. 석기시대의 문화편에 상술하였다.

※ 2) 한명윤(韓明胤)

중종 37년인 서기 1542년에 청주한씨 문중에서 한 이(韓頤)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字)를 회숙(晦叔)이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또한 효성이 지극하였던 인물로 알려진다.

선조 1년인 1568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추천으로 연은전(延恩殿) 참봉이 되었다가 영동현감이 되어 선치(善治)하였다.

임진왜란때에 백성을 모아 요새지를 사수하면서 항전하여 적세를 좌절시키며 조정에서 충용(忠勇)의 표창으로 위계를 높여 조방장(助防將)의 호를 겸하게 하였다.

1593년 상주목사가 되어 방어사를 겸하였고 그해 10월에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선무원종(宣武原從) 2등공신(二等功臣)으로 서훈되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고 충신문(忠臣門)이라고 하였다. 「선무공신」이란 임진왜란때 공을 세운 무신(武臣)들에게 준 훈호(勳號)이다.

※ 3) 한명윤 신도비(神道碑)

묘 입구에 있다. 「宣武原從功臣韓公神道碑銘」으로 제액(題額)되었는데 서하(西河) 임헌회(林憲晦)가 찬(撰)했고 심주택(沈周澤)이 썼으며 제액(篆)은 윤용구(尹用求) 필이다.

단기 4270년(서기 1937) 정축 9월에 세웠는데 개석이 있고 신석은 오석이며 방형(方形)의 비대석을 갖추고 있다.

※ 4) 이찬조(李讚祖) 정문(旌門)

용인현읍지에 용인의 忠孝烈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丙子節死 今上命旌閭」라고 하였는데 즉 병자절사라고 한 것은 병자호란에 절개를 지켜 죽었음으로 금상(今上: 지금의 임금)이 명하여 정려문(旌閭門)을 세우게 했다는 뜻이다.

이찬조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충청도에 내려가 의병을 규합 남한산성으로 진격하던중 지금의 성남 세곡동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분전하다가 생포되었다.

청태종 앞에 끌려가서 갖은 유혹과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가 결국 장작더미 위에 얹혀 화형을 당해 순절했다.

후에 병조판서를 추증하였고 정려문을 세웠다.

독정부락 중간에 정려각(旌閭閣)이 있는데 사방 1칸이며 한식 골기와 맛배 지붕이다.

정려각에 권 철(權徹)이 지은 행장기 1좌가 있다.

정려문에

「忠臣 贈 嘉善大夫 兵曹判書兼 同知義禁府事 訓練院 都正 行禦侮將軍 宣傳官 李讚祖之閭 上之 16年 丙子 10月 日立 命加 贈 旌閭」

라고 써 있다.

“地方文化의 活性化는 可能한가?”

河 周 成

現在の 交通網은 東西로, 혹은 南北으로 모든 地域이 一日의 生活領域으로 連結되어 地域마다 이 交通路를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各 分野의 發展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物質文明의 급격한 發展에 비해 精神文明의 本質인 地方의 文化는 大都市의 集中現狀을 벗어나지 못한 狀態로써 地方文化의 活性化란 大都市를 中心으로 한 몇몇 地域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小都市 體制의 市·郡의 文化의 活性化란 요원한 形態로써 物質文明의 급격한 變化에 동승하지 못한채 점점 낙후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現狀은 大都市와 인접한 市郡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地方文化의 育成政策도 이미 정해진 몇 곳을 제외하면 거의 文藝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共演藝術이나 展示 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地方文化의 침체는 大都市와 地方의 文化의 심한 이질감을 造成하고 있으며 가장 基本的인 問題點도 解決되지 않은 狀態에서 地方文化의 活性化란 허울뿐이지 깊은 수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出口가 形成되지 않는다는 점을 認識해야 하며 더욱 文化藝術이 一部 上流社會의 독점물인듯 생각하는 地方人の 意識構造가 더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解決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地方文化는 다음의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1) 共演場의 不在

大都市에 密集되어 있는 共演場이 地方에는 작은 小劇場의 규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 郡民會館이나 영화를 상영하도록 꾸며진 劇場밖에는 共演場의 施設이 없어 제대로의 共演場의 形態를 갖추고 있는 場所의 不在로 많은 시설(照明, 音響등)을 必要로 하는 專用劇場(共演藝術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場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의 작은 市·郡의 共演活動은 會館이나 展示室(이 경우에도 제대로의 完全한 施設을 갖춘 곳이 드물다) 심지어는 예식장까지 사용하고 있어 藝術活動에 必要的인 霧圍氣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綜合的인 舞臺藝術을 관람하기가 어려워 大都市의 施設을 갖춘 共演場에서 느끼는 藝術活動의 感動을 전혀 느낄 수 없어 藝術世界가 觀客에게 傳達하고자 하는 無言의 對話가 通하지 않으며 이러한 共演場의 不在는 무대예술의 內面世界의 情感을 表出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觀客에게 無意味한 藝術로 認識되어 觀衆의 質的, 量的인 低下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劇場의 不在는 地方文化의 衰退現狀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2) 藝術團體의 不在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共演場으로 인해 藝術團體 역시 大都市에 치우쳐서 結成되어 있으며 地方에서는 몇명 안되는 同好人의 모임이 있으나 그나마 마땅한 共演場이나 展示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活動이 침체되고 있으며 더욱 그들의 수준을 評價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共演團體의 養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地方文化의 活性化가 大都市와 中小都市의 特定地域에 국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점이 解決되지 않는한 地方文化의 育成은 不可하다.

3) 藝術人의 大都市 進出

地方에서 活動하고 있는 文化藝術人들의 거의가 自己故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地域의 文化의 發展을 위해 地域民을 위한 藝術活動을 하기보다는 大都市로 進出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地方의 文化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理由는 前記한 1,2項 때문으로 地域內에서 活動을 할 수 있는 場所와 마땅한 協力者가 없으며 文化藝術人의 追求인 發展이 없다는 점이다. 즉, 藝術活動으로 인하여 그들 나름의 藝術性이나 能力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이며 이러한 理由로 대개의 文化藝術에 종사하는 이들이 自身의 故場에서 活動을 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자연 條件이 좋은 中央 進出에 努力한다. 또한 地方에 있는 指定된 無形의 文化財나 널리 알려진 傳統藝術을 보아도 地域內의 活動보다도 中央에서의 活動이 더욱 많아 흡사 地方의 文化藝術이 大都市의 住民들만이 特權을 누리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으며 이러한 問題로 인해 地方人의 文化에 대한 거리감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다.

4) 文化團體의 利用不足

地方에는 各 地域마다 故場의 文化를 發展, 傳承시키기 위한 文化院이 있고 個人的으로 文化遺産을 지키기에 自身의 生活도 버린채 努力하는 상당수의 鄉土史家들이 있어 그들 나름의 脈을 形成하며 斷節되거나 잊혀져 있던 地方文

化의 育成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努力에 뒷받침할만한 財力이나 기구가 없어 애써 調査한 資料가 사장되어 있으며 地方文化의 紹介가 되지 않아 文化의 活性化란 어려운 실정이다.

地方文化의 發展이나 冊字의 發刊은 대개 主務官署인 郡公報室이나 地域의 文化院에서 맡고 있는데 文化院과 地方의 郷土史家들은 연관이 있지만 公報室과는 거의 관계유지를 하고 있지 않으며 公報室은 行政事務를 主務하는 職員만으로 構成되어 있어 自體的으로 文化의 發展이나 保存·傳承·紹介는 어려운 실정이고 文化院의 빈약한 財政으로는 많은 文化藝術 分野에 전반적인 發展·傳承·紹介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專門家의 不足으로 인해서 中央에서 招請된 專門家에게 委託할 경우 그들에게 支拂해야 하는 賃價가 엄청나 地域內에서 겨우 基礎的인 정도로 그치고 있는 狀態여서 事實상의 活成化는 不可能한 狀態이다.

上記와 같은 基本的인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地方文化의 活性化란 구호에 그치고 있는 實情이며 一部地域의 편중지원은 상대적으로 근접되어 있는 故場의 文化를 침체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다음의 條件을 解決을 본 후에야 地方文化의 活性化가 可能하다고 본다.

① 地方에서 活動하고 있는 文化藝術人의 活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最小의 條件이 갖추어진 共演場이나 展示室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그 地域에 文化藝術을 전반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藝術活動案이 마련되어 그 地域의 住民들이 自己故場의 文化藝術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도록 그 地方의 文化의 모든 活動은 그 地域안에서 이루어져 都市人과의 격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③ 대개 一部에 편중되어 있는 活動(競演이나 發表會 등)을 각 分野에 걸쳐 多樣하게 마련해야 한다.

④ 地方에서 活動하는 文化藝術人이나 地域의 文化의 脈을 지키는 郷土史家들이 충분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정립되어야 한다.

⑤ 地方의 文化團體를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專門人을 養成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여 大都市와 特定地域에 한하여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진흥기금을 地方에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基本的인 問題點이 解決되지 않고서는 地方文化의 活性化는 事實상 不可能하다고 보아야 하며 一日 交通領域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부분의 地方人들이 中央에 까지 올라가 藝術活動에 觀衆으로 참여하리란 것은 오산이며

地域에서 조차 제대로 活動이 이루어지지 않는 文化藝術이 都市人의 專用物이란 생각을 地方에 居住하는 대개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問題의 解決이 곧 地方文化의 活性化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龍丘文化에 글을 기다립니다

本 文化院에서 季刊誌로 發行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祭等 발굴기
2. 愛鄉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鄉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團體等에 동정消息等
5. 他鄉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 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풍트 龍仁에 關한 사진等 資料
7. 可級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보내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편집실 (전화) 2-2033

정암 선생 사당에서 *

이 재(1680~1746) 지음
홍 순 석 옮김

정암사당 밖엔 들꽃이 한가로운데
가는 길 바위 감돌아 산 더욱 깊고나.
흐르는 물에 홀연 그림자 드리우더니
청산도 전날 놀던 일 아는 듯 하네.

靜 庵 祠

李 緯

靜庵祠外野花悠
細逕縈回岩更幽
流水忽驚成自影
靑山應自識前遊

〈龍仁郡邑誌〉

* 이 시는 본래 제목이 없이 내용만 「龍仁郡邑誌」에 전하는 것을, 필자가 시의 첫구를 따라 임의로 정한 것이다.

증참판 이공 정려기(贈參判 李公 旌閭記)*

權 徹 지음
洪 順 錫 옮김

오호라! 이것은 고(故) 충신 증참판(贈參判) 이공(李公)의 정려(旌閭)이다. 마을에 정표(旌表)를 세우는 공이 충절로 죽은 것을 표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인신(人臣)이 된 자가 직분(職分)을 다하는 도리이며, 절의로써 죽음은 곧 당한 처지가 불행하기 때문이니, 당(唐) 나라의 장순(張巡)·허원(許遠)·안고경(顔杲卿)¹⁾과 비슷함이 있다.

옛날 인조(仁祖) 때 공은 힘이 센 것으로 인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천거되었는데, 얼마 안가서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만났다. 공은 왕명을 받들어 선지(宣旨)²⁾를 충청도 절도사(節度使)에게 전하고 돌아오다가 남한산성에 이르렀는데 적탄(賊彈)이 비 오듯하여 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할 수 없이 칼날을 무릎쓰고 주먹을 휘둘러 몇 사람의 적을 쳐서 죽이고, 적군에게 잡히게 되었지만 적병을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 적병은 화를 내어 공을 묶어 숯불 위에 놓으니, 결국 타죽고 말았다.

아! 그 뜻을 세움은 컸지만 이러한 때를 만남은 불행한 일이다. 공으로 하여금 다행히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나서 임금 곁에서 중책(重責)을 맡았다면 은연히 하나의 큰 장성(長城)이 되어 평인(黎藿)으로서도 나라를 지켰을 것이다. 이것은 옛 사람들이 충절을 가지고 임금 곁에서 종신토록 보좌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공은 어찌하여 삶을 버리기를 홍모(鴻毛)처럼 하는 어리석음에까지 이르렀으랴!

* 李橫祖의 旌閭記로, 현재 구성면 보정리 정문동에 있다.

註 1) 장순(張巡)·허원(許遠)·안고경(顔杲卿), 세 사람 모두 당나라 때 사람으로 안록산(安祿山)의 난에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다가 살해되었다. [新唐書, 百九十二卷, 列傳, 百十七卷, 忠義中]

2) 선지(宣旨) : 임금이 내린 교지(教旨)를 말함. 王旨.

그러나 공의 순절(殉節)은 적의 담(膽)을 놀라게 하였고, 사람의 기강(紀綱)을 세웠으니, 공의 죽음은 공의 마음을 인정할 만하니 다행하다고 하여도 마땅하다. 비록 당한 처지는 불행하였지만 시운(時運)이었고, 그 한 죽음의 판단은 줄연히 변을 당하여 명예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니, 평소 인륜(人倫)을 유지하려는 성품은 천성에서 얻고, 충의의 행실을 집에서 전수받아 평거무사(平居無事)할 때에는 항상 임금을 섬기되 충절을 다할 것으로 강구(講究)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위급한 때를 당하여도, 저와 같이 열열하게 몸을 버리고 의를 취하였으니, 그 당한 때의 행불행(幸不幸)은 논할 수가 있겠는가!

병자년(丙子年)이 다시 돌아옴에 충절이 더욱 빛나 정표(旌表)의 은전(恩典)이 백여년 뒤에 내려져, 후세에 이 정려(旌閭)를 지나는 자로 하여금 감탄하고 경건히 하여 모두 고 충신 증참판 이공의 정려인 줄 알아 강화도에서 충절을 세운 현사(賢士)와 심양(瀋陽)에서 의(義)에 항거한 열사(烈士)로 더불어 함께 칭송하게 되면, 그 풍속의 기강을 세우고 세상의 교화를 유지시키는 도리에는 다행한 일일 것이다.

공의 손자인 진사 한섬(漢暉)이 이일을 주간하고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하니, 감히 사양할 수 없어 드디어 기문을 쓰고 그 운(韻)에 따라 시를 지어 돌려 보낸다.

산성의 산빛은 하늘 높이 푸르고,
 높은 충절은 백세 뒤에도 칭송드리워지니,
 타버린 재는 없어져도 열기(烈氣)는 날리고
 깊은 밤 찬 달에 영혼만 살아 있는듯,
 병자년 삼월에 비참한 명나라 역사요.
 공의 끼친 형용(形容)은 조정에 높았도다.
 곱게 단장한 정려에 후손이 있으니
 오래 묵은 송백(松栢)아 어찌 시들으리.

병자년 12월 안동(安東) 권 칠(權徹) 쓰다.

山城山色矗天青 卓節長生百世聲
 燹盡驚灰颯烈氣 夜深寒月颯英靈
 春三舊甲悲周史 草偶遺形聳漢廷
 丹雘門閭知有後 喬松森栢豈凋零

〈原文〉

贈參判 李公 旌閭記

嗚呼 此故忠臣 贈參判李公之閭也 閭之旌 所以旌公之死於忠節也 忠國 爲人臣者 盡分底道理 而其死也以節 卽所遇緣不幸耳 有若唐之巡遠杲卿是已 昔在仁廟朝 公以膂力 薦除宣傳官 旌遭丙子之亂 奉命傳宣於忠清節度 還到南城 賊丸雨下 馬不敢前 遂冒刃張拳 擊殺數賊 仍爲賊所執 憤罵不絕口 賊怒 縛置炭火 意燒死 噫 其所立者卓爾 而所遇則誠不幸耳 苟使公 幸而遇昇平之世 任輦轂之重 則隱然作一長城 藜藿可衛 此古人所以秉忠節 終身聖朝之願也 豈至有捨生如鴻毛之愚也哉 然公之殉節 有以使賊膽驚破 人犯賴立 則以公之死 質公之心 謂之幸也亦宜 雖其所遇之不幸 時也而其能 死之立辨者 有非猝然遇變 因而成名者也 秉彝之性 得之於天 忠義之行 傳之於家 平居無事之時 常以事君盡節 有所講究者故 及其搶攘危急之際 捐身取義 如彼之烈 其遇之幸不幸 尙冥暇論於 舊甲重回 貞節愈光 馳旌之典 迺下於百餘年未遑之餘 使後之過此閭者 咨嗟欽尙 皆知爲故忠臣贈參判李公之閭 而與沁都立節之賢 潘陽抗義之士 表表并稱 則其於樹風聲扶世教之道 亦有幸焉 公之肖孫 進士漢暹 實履其事 而屬不佞識之 有不敢辭 遂爲之記 仍次其韻以歸之。

南城山色矗天青 卓節長垂百世聲 燹盡驚灰鷗烈氣 夜深寒月颯英靈 春三舊甲悲周史 草偶遺形聳漢廷 丹雘門閭知有後 喬松森栢豈凋零。

丙子 十二月 安東 權徹 書。



용인문화재현황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소산방법
보물 9	서봉사현오국사탑비	수지면신봉리산 111	
도기념물 1	정몽주선생묘	모현면농원리산 3	
" 3	심대장군묘	남사면완장리산 3	
" 17	채제공선생묘	용인읍역북리산 5	
" 18	민영환선생묘	구성면마북리산 63	
" 22	모현지석묘	모현면왕산리 498	
" 25	이종무장군묘	수지면고기리산 79	
" 32	반계유형원묘	외사면석천리산 28-1	
" 44	처인성지	남사면아곡리산 43	
도유형 7	심곡서원	수지면상현리 203-1	
" 9	충열서원	모현면능원리 118-1	
" 76	채제공선생너문비	용인읍역북리산 3-4	
" 20	문수산마애보살상	원삼면문촌리산 25	
문자 23	양지향교	내사면양지리 379	
" 42	공세리 5층석탑	기흥읍공세리 264	
" 43	어비리 3층석탑	이동면어비리산 31	
" 44	미평리약사여래입상	원삼면미평리 64	
" 49	주북리지석묘	내사면주북리	
" 61	창리선돌	남사면창리 487	
" 64	목신리석조여래입상	원삼면목신리 7	
" 65	분청사기도요지	외사면고만리산 37	
" 68	맹리지석묘	원삼면맹리 235	
보물 701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1첩)	포곡면가실리 204	자체후송
" 703	장승범수(1책)	"	"
" 705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철 (1첩)(불설부모은중래골경)	"	"

구 분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소산방법
국 보 133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	포곡면가실리 204	자체후송
" 136	용두보당	호 암 박 물 관	"
" 137	대구비산동출토동기류	"	"
" 138	금관및부속금구	"	"
" 139	군선도병	"	"
" 171	청동은입사보상당초봉화문 향합	"	"
" 172	진양군영인정씨묘출토일괄 유물	"	"
" 196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 경변상도	"	"
" 213	금동대탑	"	"
" 214	홍왕사영청동은입사운용문 향완	"	"
" 215	강지은사대방광물화엄경 (31 권)	"	"
" 216	인왕제색도	"	"
" 217	금강전도	"	"
" 218	아미타상존도	"	"
" 219	청화백자매죽문호	"	"
" 220	청자상감용보장단문개합	"	"
보 물 555	평저주형토기	"	"
" 556	토이	"	"
" 557	태환위식	"	"
" 558	청자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	"
" 776	금제환두타도	"	"
" 777	금동빛장일팔	"	"
" 778	청동은입사포유수설문향완	"	"
" 779	금동여래입상	"	"

〈용인문화재현황〉

구 분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소산방법
보 물 780	금동음산입상	포곡면가실리 204 호 암 박 물 관	자체후송
// 781	금동용두이수	//	//
// 782	단원화첩	//	//
// 783	동자현로도	//	//
// 784	지장도	//	//
// 785	청화백자운용문병	//	//
// 786	//	//	//
// 787	분청사기철화어문대	//	//
// 788	청화백자문어문대	//	//
// 789	청자조각쌍사자두침	//	//
// 692	묘법연화경(권 7)(1권 1첩)	//	//
// 693	소자본묘법연화경(7권 2첩)	//	//
// 694	불설사십이장경(1권 1책)	//	//
// 695	불설사십이장경합철 (불유교경위산경책)	//	//
// 697	나옹허상어록(1 권 1 책)	//	//
// 698	나옹허상가송(1 권 1 책)	//	//
// 698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5 권 1 책)	//	//
// 700	만행수능엄경(권 6~10) 선림보훈(권, 상, 하)	//	//

향토유적현황

구 분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용인제 1 호	구성향교(용인향교)	구성면언남리
제 2 호	조광조 묘소 및 신도비	수지면상현리
제 3 호	오달제 묘소 및 묘갈	모현면오산리
제 4 호	이주국 묘소 및 신도비	원삼면문촌리

알아두면 상식

※ 꽃. 그 傳說 ※

◆ 개양귀비

〈虞美人草〉

꽃말 : 慰安 · 睡眠

옛날 중국에서 漢과 楚는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 초의 項羽는 垓하(核下)의 싸움에서 적에게 포위되었다. 이때 항우에게겐 우미인(虞美人)이란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항우는 자기는 진중에서 죽을지 언정 사랑하는 우미인만은 꼭 살리고 싶었다.

해서 우미인에게 도망가기를 굳이 권했다. 하나 우미인은 항우 없는 세상에 살아서 무엇하리란 한마디를 남기고 단검으로 배를 찢러 불귀의 객이 되었다. 패배한 항우도 우미인의 뒤를 쫓아 세상은 漢高祖의 친하가 되었다. 세상이 바뀐 뒤 우미인의 무덤가에는 야들야들한 홍색의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이 꽃을 애달피 여겨 우미인초라 불렀다.



◆ 水仙

꽃말 : 白 = 마음의 神秘

紫 = 自尊 · 獨立 · 尊敬

黃 = 愛情의 再來를 希望한다.

고대 서양에선 예언이 증시되었다. 「바이블」에도 「예언자」란 말이 자주 나온다. 「배오치아」란 곳에 「나르시스」란 모습이 우아한 미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면 불행에 빠진다고 예언되어 있었다.

「나르시스」는 어느날 사냥을 갔다. 흐르는 물에 처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비쳤다. 처음으로 보는 자기 얼굴을 그는 넋 잃고 바라보았다. 정신없이 바라보던 중 「나르시스」의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그대로 한포기의 꽃이 되었다. 이것이 水仙이다.



◆ 鳳仙花

꽃말 : 赤 = TOUCH ME NOT (손대지 마세요)

黃 = 短氣

雜色 = 경멸의 감정

봉숭아, 소녀들이 손톱을 빨갱게 물들이는 꽃.

희랍의 한 여신(女神)이 엉뚱한 죄의 혐의를 받고 「올림프스」(神들의 거주지)를 쫓겨났다. 쫓겨난 그녀를 철저히 조사해 봤으나 흠뻑했다는 증거는 전연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원죄(冤罪)를 풀기 위해 몸을 죽여 봉숭아가 되어 누가 건드려도 주머니(袋)를 벌려 안을 보여 준다. 소녀들이 꽃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꽃잎이 활짝 벌어지는건 그 때문이라 했다.



▲ 결혼반지의 내력

실로 반지의 역사는 오래이다. 그리이스의 신화를 보면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에 쇠사슬로 매어달렸을 때 그 사슬을 손가락에 끼운 것이 반지의 유래라고 하였다.

고대 이집트 유적에서는 특히 반지와 같은 물건의 출토(出土)가 많은데 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어떤 신비적인 힘을 가진 것이었으나 지위나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원시사회에 있어서 반지는 추장이나 지위 있는 부족 대표들만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풍속의 전승인지는 모르나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반치는 신분이 높은 남성에게만 한정되었고 노예나 하층계급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반지는 종교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게 된다. 즉 교황이나 사교(司教)들만 끼게 된다.

결혼반지의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금의 영국땅인 프리텐 섬에 살고 있던 켈트족(族)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구혼을 하게 되면 상대를 보호한다는 것을 서약하는 표시로 반지를 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반지가 결혼 의식의 하나로서 사회에 정착한 것은 11세기 이후인 것이다.

15세기에 접어들면 불란서에서는 약혼반지에 「사랑을 서약하고 몸으로 이를 실현한다」고 하는 문구(文句)를 새겨서 혼인에 사용했던 일이 있다. 19세기의 영국에서는 반지에 「신은 결합을 허락했다. 누구도 이것을 어길 수 없다」고 새긴 것이 결혼 때에 유행했다고 한다.

결혼반지는 장신구를 하나의 신비적인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고대에 있어서, 반지를 선물하면 사랑하는 여성이 보다 굳게 자기와 결합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녀에게 바치는 하나의 의식으로 반지를 선물한 것이었다.

이 두가지 생각이 바탕이 되어 결혼 반지는 하나의 사회관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반지는 최초에 주술적인 미신물에서 출발하여 부나 권력의 상징으로, 그리고 나아가 종교사회에 사용되던 것이 이제는 사랑의 표시로 결혼식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현대와 같이 필수적인 결혼의식으로 약혼반지와 결혼반지를 사용하는 풍속이 정착하게 된 것은 기독교 문명이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결혼식이 교회와 성직자를 떠날 수 없게 되면서 본격화한 것이라고 한다.

결혼반지를 왼손의 약지에 끼는 풍속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며 반지의 모양이 원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그것이 영원과 조화,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는 영구적으로 불변하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결혼반지로 인기가 높게 된 것은 비싸다고 하는 것보다 무색투명으로 청정무구(淸淨無垢)함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인데 이것이 결혼패물로 정식으로 사용된 것은 15세기 부릴리안 컷트가 발명된 이후의 일인 것이다.

▲ 다이아몬드를 닦으세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빛도 때가 묻어 더러워지면 그 아름다움은 반감한다. 다이아몬드를 세정(洗淨)하는 손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온수 세정법

작은 걸레의 가정용의 좋은 질의 액체 세제를 발라서 더운물에 담궈 거품을 내게 한 다음 여기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넣어 작은 부러쉬로 묻은 때를 씻어

낸다. 그리고 비눗물을 빼기 위하여 약용 알콜로 닦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지와 같은 보드라운 종이를 수분을 흡수, 먼지 등을 제거한다.

② 냉수 세정법

냉수와 약국에서 팔고 있는 가정용 암모니아수를 같은 양으로 혼합한다. 이 혼합수 속에 다이아몬드를 30분 정도 담궈 둔 다음에 끄집어 내어 돌의 뒷부분은 부러쉬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화장지로 건조시킨다.

③ 초음파 세정법

보석점에는 대개 이 초음파 세정기를 준비하여 둔 곳이 많다. 이것으로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세정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씻을 수 있다. 일년 내내 손가락에 끼고 다니던 반지는 때가 묻기 마련이므로 연 1회 정도 보석점에 가지고 가서 초음파 세정기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매우 좋다.

▲ 정력식품 베스트 8

♣ 뱀장어

대부분의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뱀장어에는 인이 풍부히 함유되어 담낭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강장제의 작용을 하는데 뱀장어는 외형이 남근(男根)과 닮았다는 데서 특히 강장제로 애용되는지도 모른다.

♣ 벌꿀

벌꿀은 대단히 영양가가 높고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비타민B가 풍부하다. 그리이스의 의사 가레누스, 로마의 시인 오비티우스, 그리고 「향수의 정원」의 저자인 셰이크 네프자위 등은 벌꿀에 강장의 특효가 있다고 확신하여 마지 않았다.

♣ 굴

굴은 정력을 주는 식품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의 하나. 다른 해산물과 마찬가지로 굴에는 인이 풍부하다. 굴은 에너지의 공급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소화가 잘 된다. 굴을 보충수표로 생각한 그런 계통의 대가들이 많은데 저 유명한 카사노바도 그 중 한 사람. 그는 굴을 가리켜 「정신과 사랑에의 자극제」라고 불렀다.

◆ 한국 인삼

중국인은 한국 인삼을 일러 생명의 「만능약」이라 하여 5천년 애용해 왔다. 그 효능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만 최근 소련에서의 실험에 의하면 한국 인삼은 성적에너지를 증진시켜 몸에 좋고 또 회춘(回春)의 힘을 지니고 있다 한다.

◆ 마늘

동 서양을 불문하고 마늘은 옛부터 강장제로 여겨져 왔다. 그리이스인 및 로마인들은 마늘을 예찬하는 노래를 불렀고 동양의 연인들은 마늘을 먹는 것은 정력의 탑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캐비아

단백질이 30%나 함유되어 영양가가 높은 데가 강장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비아는 철갑 상어의 알로 생식기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물고기와 그 부산물은 미의 여신 비너스와 연관성이 있다. 비너스는 바닷물의 거품에서 생겨났다고 전해온다. 아마도 해산물에는 모두 비너스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새우

영국의 헨리 필딩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은 새우를 그런 계통의 흥분제로 묘사해 왔다. 게다가 새우에는 다른 해산물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닮은 힘도 있다는 것.

◆ 복숭아

식물학자 니콜라스 칼페라는 「이 나무는 비너스의 소유요, 그 열매는 욕정을 부채질한다」고 썼다. 중국인은 복숭아의 단 물을 바기나 냄새의 심볼로 간주해 왔으며 중국인과 아랍인들은 갈라진 부분을 여성의 성기처럼 생각해 왔다. 「복숭아의 집」이란 말은 창녀의 집으로 의미하는 속어이며, 「복숭아」란 말 자체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귀여운, 섹스 어필하는 여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공로패 수상



전국문화원 제 26 차 정기총회(87년 5월 27일)에서 용인문화원 金正根 院長은 재임기간 중 헌신노력으로 향토문화 발전과 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찬양하여 한국문화원 연합회 강 주진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용인군 향토애향대

1. 학도 애향대의 연혁

- 1) 1983년 10월 16일 : 용인군 학도애향대 발대
- 2) 1984년 4월 28일 : 용인군 학도애향대장 회의

- 3) 1984년 8월 7일~9일 : 용인군 학도애향대장 야영수련회
- 4) 1985년 4월 9일 : 용인군 학도애향대 실천결의대회
- 5) 1986년 5월 3일 : 용인군 학도애향대 실천결의대회
- 6) 1987년 5월 29일 : 용인군 학도애향대 실천결의대회



2. 학도애향대의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진적인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 예절인 경로·효친사상과 자랑스런 미풍약속이 쇠퇴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어 물질 위주의 사고와 개인주의의 팽배 등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따라서 전통예절 정신이 희박해지고 언행이 거칠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자기 고장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심이 부족하고 이웃간의 협동심도 적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품성 도야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실 청소년의 생활태도는 학교 교실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지도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학교 교육력을 마을까지 확대하여 학부모 및 주민과 합심해서 청소년의 생활을 바르게 다듬어 나가는 한편 자율적인 학도 애향대 활동을 통하여 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사발통문>

선진 문화국민의 품성을 도야하므로써 아름다운 내고장을 만들고 품위있는 용인인을 기르며 궁극적으로는 조국을 건설하고 선진 문화국민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인 학도애향대원의 약속

- 1) 나는 내고장 용인의 7위인과 호국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뿌리깊은 용인의 기둥이 된다.
- 2) 나는 학도애향대 5대 실천덕목을 성실히 실천하여 1등 학도애향대원이 된다.
- 3) 나는 내고장 용인의 주인으로써 새로운 생각과 부지런한 생활태도로 아름다운 내고장을 지키고 가꾼다.
- 4) 나는 이웃을 위해 일하며 서로도와 내고장 발전에 이바지한다.

4. 애향대의 조직

1) 원칙

-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연합조직
- 자연부락 단위로 대 편성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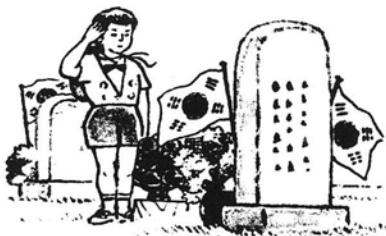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국민학교	32	17,976
중 학 교	10	8,832
고등학교	6	5,664
계	48	32,472

5. 애향대의 기본 정신

- 1) 주인정신
- 2) 애향정신
- 3) 봉사정신
- 4) 협동정신
- 5) 자율정신

6. 애향대의 실천덕목

- 1) 정직 : 정직한 마음
- 2) 친절 : 친절 한 태도
- 3) 질서 : 질서있는 행동
- 4) 예절 : 예절바른 몸가짐
- 5) 청결 : 청결정돈하는 습관



7. 애향대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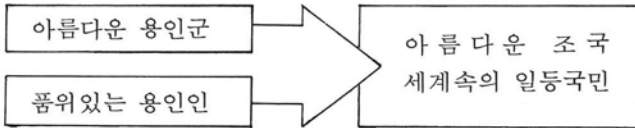
● 5대 덕목실천

개인 → 가정 → 마을 → 사회 → 국가

8. 애향대의 활동방법

- 1) 자율적이고 즐거운 애향운동으로 전개
- 2) 지역 여건에 알맞은 실천과제 선정
- 3) 월 2회 이상 「마을미화의 날」 설정 실천
- 4) 매주 토요일 「애향의 날」 설정 실천

9. 애향대의 전망



10. 용인 애향대의 소식

1) 서룡국민학교의 태권도가 용인을 빛낸다.

● 지난 5월 16~17일까지 서울 국기원에서 실시한 태권도 대회에서 서룡국교와 용인국교가 참가하여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룡국민학교의 개인별 참가수상 실적은 다음과 같다.

영역	체급	등위	성명	학년
겨루기	미들급	1위	유웅열	6학년
//	웰터급	1위	임중혁	//
폼 세		1위	박지춘	2학년
인기상		1위	유웅열	6학년

2) 제 4회 도지사 및 교육감기 학생장사 씨름대회에서 종합 3위

● 1987. 4.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수원에서 실시한 씨름대회에서 장평국민학교가 출전하여 종합 3위를 하였다.

● 지난 1987년 6월 3일 용인국민학교 강당에서 용인군 학도애향대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우수애향대 및 유공자 표창과 학도애향대 활동성과 및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실천계획을 용인군 학도애향대 대장 대표가 발표하였다.

11. 학도애향대 우수사례

작은 희망

두 창 국민 학교
용수부락애향대
대장 박 동 식

토요일 오후.

가벼운 발걸음은 내일의 휴일을 즐기려는 상징인양 친구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 재미있게 놀아야지 하고 모두의 얼굴은 환하였다.

한 부락 친구들과 학교에 오가는 시간은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을 때 한 여자 친구가 말하였다.

“이곳에 마을 화단을 만들면 좋겠다.”

또 한 친구가 말하였다.

“길 가에 꽃을 심으니까 화단은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여러가지 의견을 나눈 끝에 일요일 아침에 모여 화단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일요일 아침.

날씨는 맑고 바람은 시원했다.

모든 대원들이 모여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들 스스로 하는 일이라 즐겁기만 하였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꽃을 심고 돌을 세우고…….

힘은 들었지만 마냥 즐거웠다.

여자들도, 아래학년 대원들도 모두가 열심이었다.

오늘 심은 꽃들은 머지않아 우리 마을 입구를 밝게 만들어주겠지. 모두의 마음속엔 작은 희망은 하나였다.

학도애향대 활동.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한 것 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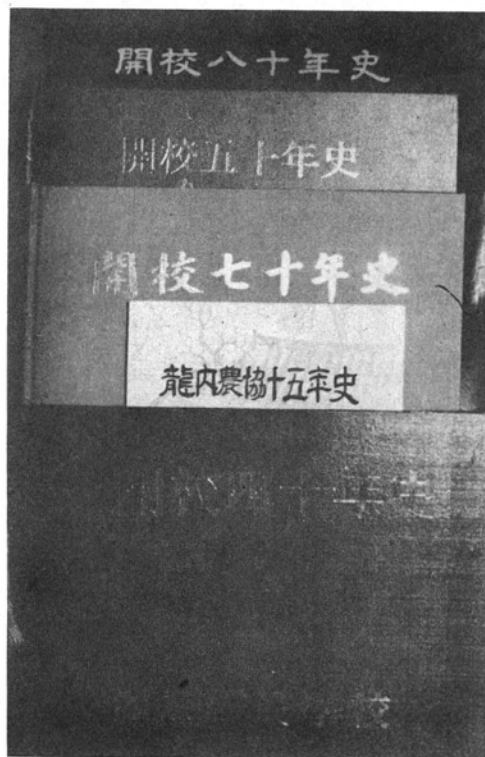
작은 힘으로 작은 일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작은 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엔 작은 희망이겠지만 그 작은 희망이 모여 큰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직장의 뿌리찾기운동

문화창달의 일환으로서 내고장의 역사를 알고 그 뿌리를 찾아내어 가꾸자는 뜻과 함께 내 직장의 뿌리찾기운동이 활발하다.

그간의 오랜 역사와 뿌리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통의 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선배들의 숨결이 서린곳,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대적 소명앞에 과거와 오늘을 찾고 내일을 새롭게 전망할 수 있는 “내 직장 뿌리”로는 「신갈국민학교 70년사」(82년 1월 발행)에 이어 「포곡국민학교 50년사(83년 9월 22일 발행)」, 「용천국민학교 40년사(84년 4월 1일 발행)」, 「양지국민학교 80년사(86년 1월 1일 발행)」, 「농협용내조합 15년사(86년 12월 31일 발행)」를 엮어 직장에 뿌리로서 이어가도록 발행되었다.



재경용인군 향우회 소식

지난 6월 13일(토) 서울 비원에서 제 1회 재경용인군 향우회 정기총회겸 야유회를 회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재경용인군 향우회 이 용회 회장은 향우회는 同鄉의 벗들과 선후배가 모여서 옛정을 나누고 우정과 친목을 돈독히 하는 가운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향토의 발전에도 함께 참여하라는 뜻이 담긴 모임으로 날로 발전하는 향우회가 되길 다짐하였다.

제 5 회 영지회꽃꽂이작품전

지난 5월 29 ~ 30일까지 제 5회 영지회 꽃꽂이 전시회를 용인문화원 전시실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영지회 꽃꽂이 중앙회 김 경자 회장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관내 어려운 사람인 정 희숙(용인군 용인읍 남리), 소 흥례(이동면 시미리), 김 태영(용인읍 김량장리)에게 전달하였다.

제 5 회 용문서예회원전

용문서예학원 주최로 제 5회 용문서예 회원전을 6월 11일 ~ 6월 14일 까지 용인 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용인 서예 전시회

용인서예학원 주최로 지난 5월 7일 ~ 5월 10일까지 용인 행복예식장 서예실에서 가졌다.

≡ ≡ 제 2 회 용구문화제 행사계획 ≡ ≡

1. 목 적

향토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용인군민의 날을 기하여 전통민속 문화제 행사를 개최코저 하며, 애향심 고취와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며, 전통 풍속놀이를 재현 전승시켜 향토애를 돈독히 함에 있다.

2. 방 칙

- 1) 용인 민속문화를 활성화시켜 향토문화의 유산을 발굴 전승한다.
- 2) 민속 문화행사를 통하여 화합 전진하는 군민상을 정립하고, 군민 총화를 다지는 문화 축제로 성대히 개최한다.
- 3) 군민이 동참하여 창조, 자조, 협동의 기풍을 조성하여 전통 문화 창달과 향토애를 크게 다진다.

3. 일반사항

- 1) 대회명칭 : 제 2 회 용구문화제 (군민의 날과 합동 실시)
- 2) 일 시 : 1987. 9. 29 일 (화요일) 1 일간
- 3) 장 소 : 용인공설운동장
- 4) 신청마감 : 1987. 9. 10 일 17:00 (첨부양식의거)
- 5) 주 최 : 용인문화원 (전일부터 전야제 행사까지)
- 6) 후 원 : 용인군청, 용인경찰서, 용인군교육청, 경인일보, 농협용인군지부

4. 기념행사

- 1) 일 시 : 1987. 9. 29 일 12:00 시 (화요일)
- 2) 장 소 : 용인공설운동장
- 3) 기념식순 : ○ 주 악 : 용인상업고등학교
 - 선수 및 농악부 입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대회사(문화원장)

- 격려사(군수)
- 축사(국회의원)
- 선수 및 농악부 퇴장
- 민속행사(민속경연대회)
- 성적발표
- 시상
- 대회장인사(문화원장)
- 전야제행사

5. 행사종목

—민속행사—

- 농악(면대항)
- 씨름(일반)
- 그네(일반)
- 제기차기(일반)

—전야제—

- 시가제등행렬 —용인상고(악대), 용인여고
- 민속춤(용동중학교)
- 서울농악초청공연
- 명인명창초청공연



6. 민속행사(각 부분별 대회)

1) 농악경연대회

- 경연구분 : 읍, 면 단체공연
- 참가인원 : 읍, 면당 20명 이상
- 평가기준 : 공개공연시범, 경연평점
- 심사위원 : 당일발표
- 시상내용
 - 1위 : 트로피, 부상
 - 2위 : 트로피, 부상
 - 3위 : 트로피, 부상



2) 씨름부분

- 경기구분 : 용인장사개인전
- 참가자격
 - 개인(읍, 면당 5명 이내)
 - 자격(1987년 9월 1일까지 기준 만 20세이상)
- 체 급 : 제한 없음
- 경기방법 : 토너먼트전(3판 2선승으로 한다)
- 시상내용 : 1회 대전시간은 3분으로 하되, 무승부 일때는 경량자를 승자로 한다.
 - 1위 : 우승컵, 황우 1두
 - 2위 : 컵, 부상
 - 3위 : 컵, 부상
 - 4위 : 컵, 부상
 - 5위 : 컵, 부상

3) 그네부분

- 경기구분 : 개인전
- 참가인원 : 읍, 면당 5명 이내
- 참가자격 : 1987년 9월 1일 기준 만 20세이상
- 복 장 : 간소복
- 경기방법 : 개인전 1인 1회 출전
- 시상내용
 - 1위 : 트로피, 부상(금지환)
 - 2위 : 트로피, 부상
 - 3위 : 트로피, 부상

4) 제기차기

- 경기구분 : 개인전
- 참가인원 : 읍, 면당 5명
- 참가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복 장 : 한복
- 경기방법 : 개인전 1인 1회 출전
- 시상방법 :
 - 1위 : 트로피, 부상
 - 2위 : 트로피, 부상
 - 3위 : 트로피, 부상

7. 기타 행정사항

- 1) 읍, 면장께서는 전 종목을 출전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각 읍, 면 출전선수 및 농악부 참가자는 1987년 9월 29일 11:50분
까지 대회장소에 입장을 필한다.
- 3) 각 종목별로 선수는 읍, 면장이 지역사람으로 선정하여 명단 제출
- 4) 대회규정 및 경기에 대한 의의 제기는 읍, 면 인술자 대표자만이 할수
있다.
- 5) 신청마감
 - 일 시 : 1987년 9월 25일(17:00시까지)
 - 장 소 : 용인문화원(전화 : 2-2033)
- 6) 음식물 판매업소는 자유로 함. (단, 등록업체에 한함)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초상

자는 백규(白規)이고 호는 번암(樊巖)인 채 제공은 조선후기의 대정치가로서 숙종 46년 경자 즉 1720년 평강채씨의 문중에서 응일(應一)의 아들로 태어났다.

번암(樊巖) 채 제공(蔡濟恭)은 24세때 정시(庭試) 문과에 급제하고 34세때에 호서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 균역법과 염세(鹽稅)를 실시하고 정조 18년(1794)에 초대 화성유수(華城留守)가 되었고, 수원성 축조의 총리대신으로써 1794년 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2년반이 지난 1796년 9월 10일(정조 20)에 완공시켰다.

또한 글씨에도 뛰어나 수원 용주사에 보관되어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그의 육필이며 왕명에 의하여 목판(木板) 석판(石板) 철판(鐵板)의 3종으로 제조하여 봉안케 한 것이다.

그는 정조 23년(1799) 정월 18일에 별세할 때까지 80여세의 수를 누리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묘는 용인읍 역북리 5번지이다.

李 應 峻

편집후기

- ♥ 龍丘文化誌를 龍仁郡民 모두가 갖고 싶도록 광범위하고 내용이 풍부한 것을 내놓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人力과 財政難으로 뜻에 보답지 못하는 안타까운 心情으로 第11號를 發刊하게 되었다.
- ♥ 本院增部計劃에 依하여 第10號부터 200部를 增部 1,200部를 配付하였으나, 그래도 不足한 實情이다.
- ♥ 「龍丘文化」가 地方文化誌로서 널리 알려지 먼 훗날 郷土史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 第11號에는 白磁文化를 이룩한 우리나라 朝鮮時代에 「朝鮮白磁의 理解」를 소개하였고, 「一事一考」의 자리를 만들어 玉稿를 소개코저 한다.
- ♥ 「龍丘文化」를 아끼는 마음으로 玉稿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眞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龍丘文化」가 되게 늘 격려해 주기 바라며……

李 應 峻

용 구 문 화 제11호

1987년 6월 25일 인쇄

1987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응 준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화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